2024 설 가정예배

▶ 신앙고백	 사도신경		다같이
▶ 찬 송	 550장		다같이
▶ 기 도			말은이
▶ 성경말씀	 히브리서 6:11-15		말은이
▶ 설 교	 복을 주고 번성케 하기가!		말은이

사랑하는 가족 여러분!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? 우리의 신앙고백에 따르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습니다.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나아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, 택한 믿음의 성도에게 복에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.

그러면,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?

첫 번째,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.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.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.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. 또한,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.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! 시시각각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실하신 하나님,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.

두 번째,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.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해 “**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**”고 증언하고 있습니다. 성급한 사람은 은혜도 축복도 받기 어렵습니다. 실수도 있었지만,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,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리고, 또 기다리며 참았습니다.

중요한 것은,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.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믿음,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,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, 하나님은 복 위에 복을, 번성 위에 번성을 주신다는 믿음,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에 그는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.

잊지 말아야 할 것은,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. 믿음이 좋아야 생각도 좋고, 행동도 좋고, 말도 좋고, 생활도 좋아집니다.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쁜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! “**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**”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한 해,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현실이지만,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음으로 복을 받고 번성케 되는 삶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. 나아가,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, 물 댄 동산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.

▶ 기 도			말은이
▶ 찬 송	 570장		다같이
▶ 축 복			말은이

● 가족 중 웃어른이나 연장자가 있을 경우,
자녀손들에게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갖습니다.

▶ 주기도문			다같이
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

▶ 찬송가 550장

1.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
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
2.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
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
3.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
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
4.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
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 멘.

▶ 히브리서 6:11-15

-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
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
-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
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
- 13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
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
- 14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
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
- 15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 멘.

▶ 찬송가 570장

1.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양
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
2.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
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
3.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 하리
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

[후렴]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
철을 따라 풀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 멘.